



경북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으뜸상에 최지훈 아기

경북간호사회(회장 윤난숙)가 '제11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7월 10일 경주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경상북도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 아 91명이 참가했다. 으뜸상에 최지훈(남·6개월) 아기가 선정돼 20만원 장학증서를 받았다. 으뜸상에 최지훈(남·6개월) 아기가 선정돼 20만원 장학증서를 받았다. 으뜸상에 최지훈(남·6개월) 아기가 선정돼 20만원 장학증서를 받았다.



전북간호사회 정책 아카데미 개최

전북간호사회(회장 안옥희)는 '2018 정책 아카데미'를 6월 28일 개최했다. 간호정책과 현안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지역의 간호사 110여명이 참석했다.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당평화당 국회의원이 보건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특강을 했다. '셀프리더십' 주제로 3P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가 강연했다.

충북간호사회 역대 회장 간담회

충북간호사회(회장 박미숙)는 역대 회장 간담회를 7월 4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무순, 이화자, 박종숙, 목진향, 김은희, 김봉숙 전 충북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활발한 운영에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면서 "더욱 발전하는 충북간호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미숙 회장은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충북간호사회를 더욱 건실하게 다지고,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서울시병원간호사회 중간관리자 워크숍

서울시병원간호사회(회장 유재선)는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6월 19일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산마을에서 개최했다. 서울지역 35개 병원의 중간관리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진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병원간호사회 발전을 위한 견도 나눴다. 유재선 회장은 "현장에서 애쓰는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힐링 워크숍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간호사회 시·군별 회원 간담회 개최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림)는 도내 6개 시·군을 순회하며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분회인 천안시간호사회와의 간담회(6월 5일)를 시작으로 아산(6월 8일), 홍성(6월 12일), 금산(6월 18일), 부여(6월 22일), 정양(6월 29일) 지역의 간호부서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며 "지역사회와 간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미림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간 소통과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순회하며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송라운 충남대 교수 '미국 FAANP' 선정

송라운 충남대 간호대학 교수가 미국전문간호사학회 정회원(FAANP-Fellows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으로 한국에서는 처음 선정됐다. 정회원 입회식은 지난 6월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국전문간호사학회(AANP) 연례 학술회에서 진행됐다.



주혜진 기자 hjiou@

인구의 날 간호사 7명 장관 표창

제7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간호사 7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7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영란 우리여성병원 간호부장 △신유정 부산시 서구보건소 지방간호주사 △김유숙 인천시 연수구 지방간호주사 △최순덕 강원도 삼척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김미경 전남 순창군 보건의원 지방간호주사 △박현정 경남 사천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 △박선희 경남 함양군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인구의 날 기념식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일·생활 균형의 일환으로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하고자 '혼자하면 힘드니까, 함께하면 든든하다' 주제로 열렸다.

주혜진 기자 hjiou@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성란 간호사 시민 생명 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김성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당뇨교육실 간호사가 화제다. 김성란 간호사는 7월 1일 홍천휴게소에 들렀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다. 곧바로 자신이 간호사임을 밝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게시판

서울시간호사회 연구용역사업 제공고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간호인력 정책분야 및 전문간호사분야의 개선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고자 제공고를 했다. 연구용역사업 과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적정인력배치 기준 설정 △전문간호사 운영전략 개발 두 가지다. 연구비는 각 과제 당 1500만 원이다.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 참조. 02) 853-5497.

산업안전보건 기여 간호사 3명 표창

제5회 산업안전보건건강주간을 맞아 간호사 3명이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령을 이윤정 경인여대 간호학과 교수(산업간호사회 이사), 국무총리상상을 임규리 국방과학연구소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회 부산·경남지부 감사),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이명진 산업간호사회 사업국장이 수상했다.



주혜진 기자 hjiou@

서울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경진대회 열려

최우수상 강북구보건소 ... 재난 대응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1회 서울특별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가 7월 9일 열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재난의료지원팀인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북구보건소는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재난응급의료포함훈련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수 사상자가 사고현장 시나리오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도상훈련 △재난법령 비상대응매뉴얼 재난판넬 △개인보호장비 착·탈의 등 3종목을 실시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한국질적연구센터 20년사 발간



한국질적연구센터 20년사가 발간됐다. 한국질적연구센터는 인간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3월 창립했다. 그동안 국내외 학술대회 및 워크숍, 학술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질적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이더하는 역할을 했다. 국제 학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후학양성 및 학회지 발간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한국질적연구센터 신경림 소장은 "센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재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소중한 작업"이라면서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질적연구센터의 성장과 발전이 있기까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제니스 모스(Janice Morse) 유타대 간호대학 교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질적연구센터 20년사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 한국질적연구센터의 현황에서는 설립근거와 연혁, 주요사업, 임원 및 회원 등을 소개했다. 제2부 주요사업내용에서는 국제학술대회 및 워크숍, 국내학술대회 및 워크숍, '질적연구' 학술지 등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제3부 한국질적연구센터의 성장과 비전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규국 기자 kschung@



간호 에세이 '간호사 김영미' 발간

김영미 전 서울대병원 간호과장 첫 수필집 펴내

"언제든 한국을 떠날 생각으로 기숙사에서 트렁크의 짐도 풀지 않고 시작했던 간호사. 열심히 신나게 일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제 화려한 축제처럼 영원할 모든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기며 정년을 맞았다." 김영미 전 서울대병원 간호과장이 자신의 첫 수필집 '간호사 김영미'를 펴냈다. '대학병원 간호사가 들려주는 간호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창작수필>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그가 그동안 '간호사'와 '고향'을 모티브로 써온 글들을 모아 엮었다. 수필집은 △1부 '오만과 편견' △2부 '그 새벽의 고수레' △3부 '활력징후' △4부 '큰 송방백' △5부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내 고향'으로 구성됐다. 수필작품 38편과 신문 기고문 등 6편이 수록됐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글들이다. "호된 사고식을 치른 한 사건 이후 복지부동을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다이어트 결심처럼 늘 다짐하지만 실행이 안 됐다"는 글에서 강단 있게 병원의 현장을 지켜온 깊은 내용이 느껴진다. 해외연수 등과 같이 지금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당연한 일들도 '그 첫 시작엔 용기가 있어야 했다'고 들려준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하고 이뤄냈을 때의 행복, 하루가 24시간인 게 안타까웠던 알뜰한 개인준비단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 돌아보면 '그때는 맛있지만 지금은 틀리진'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간호사의 위상, 간호인력 부족문제, 감정노동, 환자교육, 환자안전, 간호사 실무교육, 간호기록 같은 이슈들을 실제 경험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쉽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풀어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곱씹어보게 해준다. 유리주사기, 수동(수은) 활활계, 간호사실의 난반용 연탄난로 등 이제는 유물로 남겨진 '그때 그 시절' 병원의 옛 모습을 글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필자의 유년시절 추억과 외갓집 이야기, 고향 강원도가 '그림이 되고 시가 된다'고 할 만큼 유별난 사랑도 글로 담았다. 읽는 이들의 가슴 한편을 따뜻하고 몽글하게 해준다. <에듀맥토리 / 254쪽 / 1만6000원> 정규국 기자 kschung@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문의 전화 1522-1755